

에코갤러리

Ecogallery



오섬훈 | Oh, Seom-hoon, KIRA
(주)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

약력

-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졸업
- AA School 수학
- 국민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
- 본지 편찬위원회 위원

Location | Seoul Nowon-gu Gongheung-dong

Site area | about 3,000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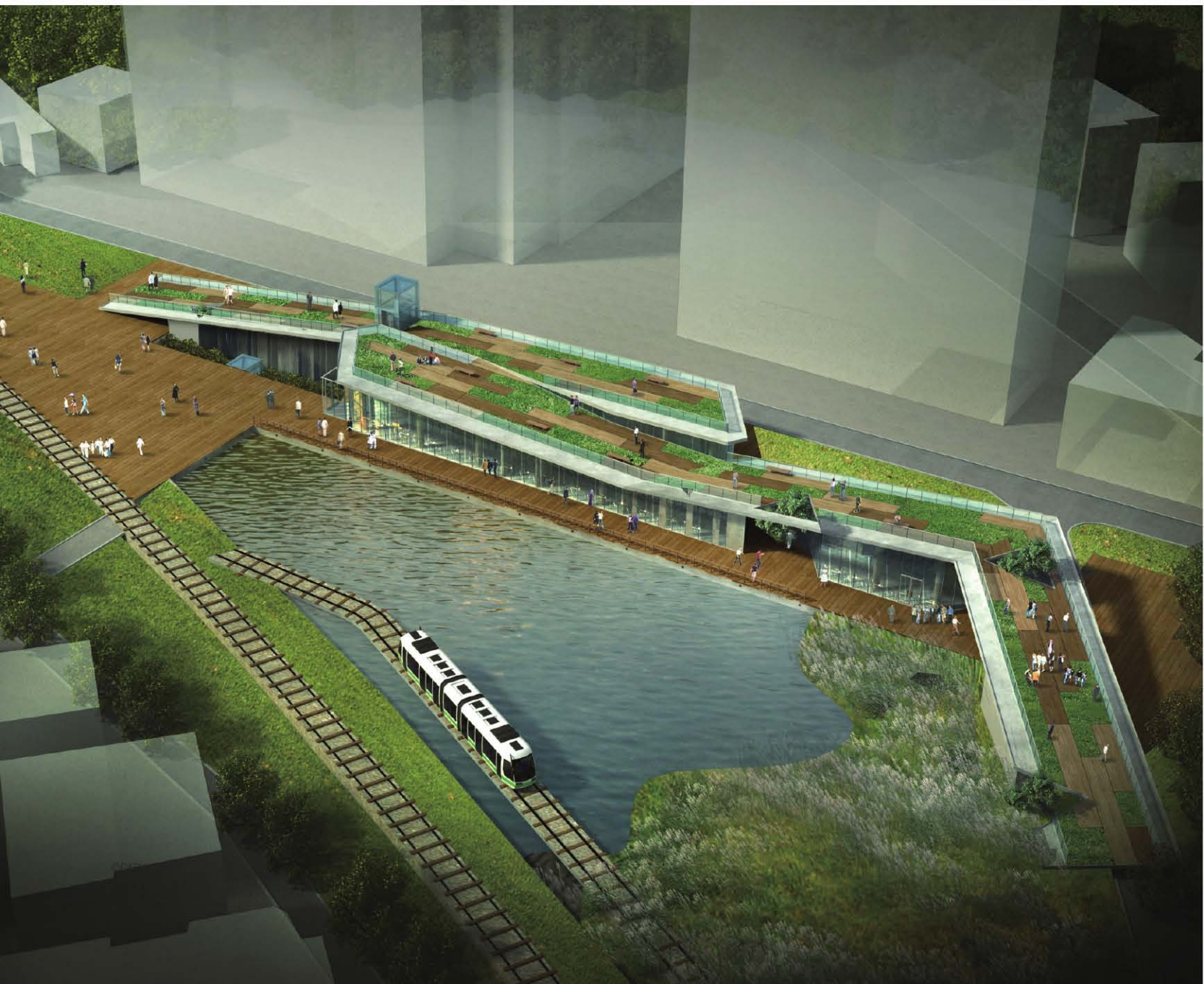
Building area | 942.0m²

Gross floor area | 1,525.8m²

Structure | R.C structure

Building to land ratio | about 30%

Floor area ratio | about 50%



Tilted Surface

“너무 긴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?”

“다목적 공간이란게 뭐요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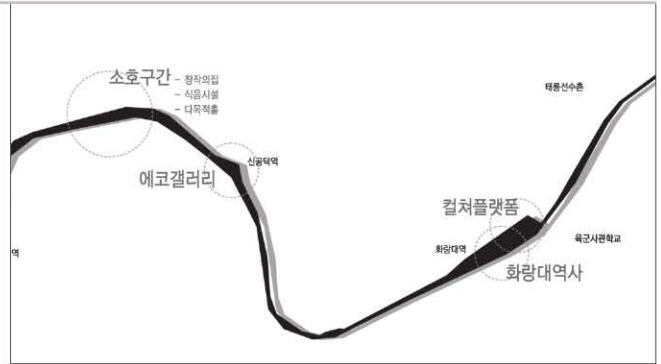
“정확한 용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?”

“설계자가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지..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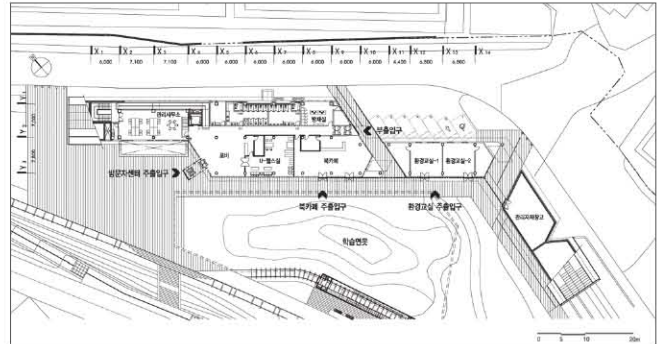
작년 상반기에 경춘선 공원 프로젝트의 본 건물인 에코갤러리를 두고 일 어났던 한 장면이다.

소위 추억의 춘천가는 기차의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현 상을 했다. 폐선철도부지를 도심공원으로 성공리에 끝낸 뉴욕의 high line 등이 거론되면서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이다. 성북역에 서 갈매역까지 60여 Km에 이르는 테마형 선형공원으로써 그 속에 '문화' 의 성격을 지니는 거점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공원의 성격을 좀 더 뚜렷 이 하고자 했다. 현상단계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이 문화적 성격을 만들어 내는데는 좋으나 운영이나 수익적인 측면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. (서 울시는 '북서울꿈의숲' 에서 운영의 수지적 측면에서의 문제 즉, 적자운 영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)

현상초기에 본 프로젝트 장소에 설정된 생태적인 성격의 공간에 대한 개 략적인 프로그램이 튼튼한 객관적 자료 뒷받침 부족으로 다시 조정되고 정리되어야 했다. 이 과정에서 엄밀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여러 차 례 시행착오와 자문 등이 뒤따라야 했다. 결국 순수 문화프로그램으로 인 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관리본부의 성격이 부가되기 에 까지 이르렀다.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정되기까지 안 만들기를 미룰 수 없어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지역의 성격 설정을 '생태' or '자연친화적 장소'로 한 것을 바탕으로 안의 큰틀을 먼저 짰다. 습지의 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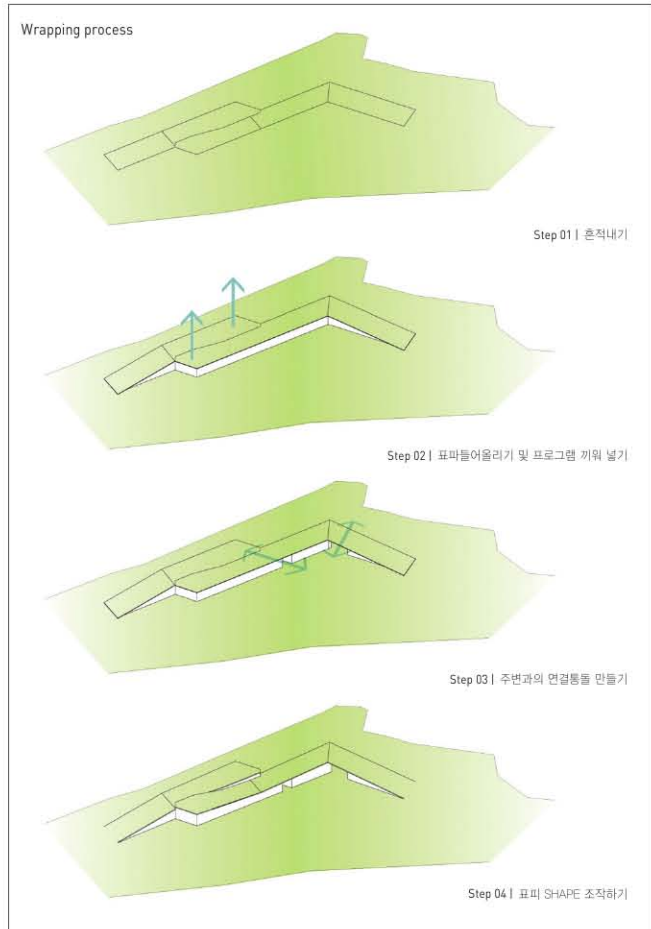


전체 시설현황



1층 평면도

격을 지니는 학습연못과 이곳에 들어갈 건물을 땅의 표피를 들어 올려서 그 속에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고, 땅의 표피를 3차적 입체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.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건물의 길이가 길어지고, 프 로그램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 생긴것이다. 땅의 표피에 칼 자국 같은 것이 생겨 그속에 프로그램이 들어 앉은 것이다. 건물표피가 땅표피의 연 속된 제스처를 가지게 된 것이다.



container 속성 - wrapping program

건축물이 본질적으로 container적인 속성을 갖지만 그 container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가 초점이 된다. 담는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싸는 방법 을 찾아서 만들고 싶다. 담기는 프로그램이 한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일 경 우는 더욱 그 기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. 각각의 프로그램이 싸여서 전 체를 싸는 그런 방법.

동선체계

또 하나, 공간의 경험이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체계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된다. 각각 싸여진 (여기선 분절된) 각각의 프로그램을 향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. urban context를 좀 더 풍성히 하고 그 결과들이 이 장소에 기존의 철도로 인한 장소 이미지 위에 또다른 장 소성을 하나 추가하게 될 것이다.

